

유럽 출장 마친 이재용 “기술, 기술, 기술”

헝가리·독일·네덜란드 등 방문
업계 변화 체감…위기극복 초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력”
전기차 부품 사업 행보도 눈길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술’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2일 동안 헝가리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을 방문해 사업 파트너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시장의 변화를 폭넓게 둘러봤다. 이 부회장은 업계의 변화를 체감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력을 강조했다.

●ASML과 EUV 장비 수급 협의

이번 출장에서 이 부회장은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부회장은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해 피터 베닝크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양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세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원활한 수급 방안을 협의했다. 이 밖에 ▲미래 반도체 기술 트렌드 ▲반도체 시장 전망 ▲양사 중장기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삼성전자는 ASML과의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EUV를 비롯한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술을 고도화시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도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5일에는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 종합반도체 연구소 imec을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루크 반 덴 호브 CEO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루벤에 있는 imec을 방문해 루크 반 덴 호브 CEO와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사진제공 | 삼성전자

O와 만나 ▲반도체 분야 최신 기술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imec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정기술 이외에도 인공지능, 생명과학, 미래 에너지 등 첨단분야 연구 과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 중요했던 건 ASML과 반도체연구소에서 차세대, 차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BMW 만나고 하만카돈도 방문

이번 출장에서 이 부회장이 반도체만 큼이나 전기차 부품 사업 관련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도 갔고, 고객사인 BMW도 만났다. 하만카돈도 갔다”고 말했다. 헝가리에는 삼성SDI의 배터리 공장이 있고, 하만카돈은 2016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전장 회사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 업계의 급변하는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에선 못 느꼈는데 유럽에 가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더 느껴졌다”며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

법으로는 유연한 문화와 기술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조직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며 “그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보도 첫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엔 한미정상의 경기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에 함께했고, 24일에는 5년 간 45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밝혔다. 30일에는 팹겔싱어 이번 CEO를 만났고, 31일에는 6년 만에 삼성호암상 시상식에도 참석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신제품에 가전 양관점서 판매까지…KT 로봇 사업 강화

KT가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에 이어 방역로봇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는 한편, 가전 양관점에 제품을 선보이는 등 판매 채널도 확대했다.

KT는 전자랜드와 로봇 시장 발굴 및 사업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우선 서울 용산 전자랜드 3층에 ‘KT로봇관’을 열고, 주력 제품인 서비스로봇과 방역로봇을 시연하고 판매한다.

고객들은 KT로봇관을 방문해 서비스로

봇과 방역 로봇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전자랜드를 통해 구매신청서 접수도 가능하다. 설치와 사후 관리는 KT를 통해 이뤄진다. KT는 용산 전자랜드의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32개 전자랜드 주요 거점에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전자랜드와 로봇 사업 협력을 전국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서비스로봇은 사방과 안내, 퇴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특화 자율주행 로봇이다. 3월 선보인 방역로봇은 인공지

능(AI) 실내자율주행 기능을 바탕으로 생활공간의 세균과 바이러스, 유해가스 등을 제거한다. KT는 최근 이 방역로봇을 닥터 부동산산홍보관에 시범 도입하기도 했다.

KT의 서비스로봇과 방역 로봇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어를 할 수 있고, KT AI관계플랫폼에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은 “전자랜드의 IT, 가전 유통 전문성을 AI로봇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KT와 일치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전자랜드의 유통채널을 적극 활용해 로봇을 전자제품처럼 쉽게 접



용산 전자랜드 3층 KT로봇관에서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왼쪽)과 육치국 전자랜드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주변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LG AI연구원, 세계적 AI 학회서 기술력 입증 ‘CVPR 2022’ 정규논문 6편·워크숍 논문 1편 발표

LG AI연구원은 세계 최고 권위의 AI(인공지능) 학회인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서 정규 논문 6편과 워크숍 논문 1편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모리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CVPR은 ‘AI의 눈’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학회다.

LG AI연구원은 지난해 CVPR에서 논문 1편을 발표했는데, 올해는 단독 연구 논문을 포함해 2편이 구두 발표에 선정되는 두드러진 연구 성과를 보였다. 특히, 초거대 멀티모달 AI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과 관련한 단독 연구 논문이 구두 발표 대상에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구두 발표 기회는 학회에 제출된 논문 중 4% 이내에 해당하는 최상위 평가를 받은 연구에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학계 중심의 산학 협력 논문들이 주류인 AI 학회에서 개별 기업이 단독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은 앞서 이번에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세계 최초로 언어와 시각 정보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초거대 멀티모달 AI ‘엑사원(EXAONE)’을 개발했다. 올해 초 뉴욕 패션 위크에서 AI 아티스트 ‘틸다’가 박은희 디자이너와 협업해 200개가 넘는 의상들을 선보인 것은 엑사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 출범 2년차인 LG AI연구원은 CVPR을 비롯해 국제 저명 AI 학회인 ‘AAAI’와 ‘ICLR’, ‘ACL’에서 정규 논문 14편과 워크숍 논문 6편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편의 논문 발표로 지난해 전체 성과인 18편을 뛰어 넘었다. 김명근 기자

SKT, 대학생 테크 인플루언서 모집



SK텔레콤은 개발과 프로그래밍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며 개발자 생태계 내 소통과 공유 문화를 확산시킬 대학생 테크 인플루언서 ‘테코션 영(자신)’을 모집한다. 테코션 영은 개발자 커뮤니티 ‘테코션’에서 활동하게 된다. 테코션은 SK텔레콤이 지난해 6월 SK하이닉스, SK C&C,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SK ICT(정보통신기술) 패밀리 소속 개발 전문가들과 외부 개발 인재 간 소통을 위해 만든 개발자 커뮤니티다. 테코션 영에 선발된 대학생들은 7월부터 5개월 동안 개발과 프로그래밍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테코션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SK ICT 패밀리 소속 개발자의 밀착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테코션 영은 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26일까지 테코션 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0일 (월) 음력: 5월 2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웅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비룡재전 이견대인이라 했다. 운이 최고의 상태에 있으니 실력 있는 협조자를 만나면 좋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다.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라. 그렇지 못하면 이득이 크지 못하고 현상유지로 끝나기 쉽다. 관재수도 조심해야 한다. 취침 시 북서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운이 좋은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기도 한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쳐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아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호랑이 피와 말뚝을 만나라.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로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특히 상대가 말뚝생이면 더욱 확률이 높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황재수가 있는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손을 안 대도 될 것을 자꾸 건드린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차분하게 간직하는 것이 대처법이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4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